

3월3일

심채린

본문: 출애굽기 12장 21~28절

제목: 지켜야 할 명령

대지: 표적이 될 피 / 순종으로 행하라

한 문장: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입니다.

참고:엑스포지멘터리, UBC, 출애굽기 산책(박철현)

유월절이란 ‘넘어서 지나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유월절 어린 양 주제를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지어 이야기 합니다.

공관복음은 유월절이 주의 만찬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요한복음은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을 유월절 어린양으로서의 죽음으로 제시합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속박)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본문들에 나타난 주제는 죄와 죽음과 악의 속박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유월절의 첫 시작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뜻을 꺾지 않는 애굽에게 10가지의 재앙을 예고하였습니다.

유월절은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애굽왕 바로에게 전한 마지막 메시지는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을 모두 죽이겠다는 경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지막 한 가지 재앙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이 있는 달을 1년의 시작으로 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가장 큰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그들의 삶의 시작이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빕 월 10일에 한 살 이전의 흠 없는 숫양이나 숫염소를 취해 4일동안 집안에 두어 부정한 것에 접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14일에 되어 이 짐승을 잡고 우슬초 묶음에 그 짐승의 피를 적서 문설주에 바르게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날 밤 피가 발라지지 않은 애굽 사람들을 모두 죽이실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하나님께 받은 유월절 규례를 알려주고 행하여 지키게 했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자손 대대로 지키며 이 절기를 지킬 때 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을 것을 말했습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이 구원을 받은 것은 발려진 피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를 통한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셨지만 결국은 그의 말씀대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자만을 구워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달려져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시나 그 구원은 오직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훗날 유월절 절기에 대한 지침은 어린 양의 피에 대해 다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린양의 피로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단번에 죽음을 패배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유월절을 기억할 때 죽을 수 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받음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3월10일

심채린

본문: 출애굽기 20장 1~17절

제목: 열 개의 계명

대지: 구원의 기초 / 핵심

한 문장: 십계명의 가장 핵심 하나님 사랑을 내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가입니다.

참고:엑스포지멘터리, UBC, 출애굽기 산책(박철현)

교회를 다니며 십계명에 대해 안들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학교 학생 때에는 십계명 외우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는 십계명은 성경 역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십계명의 내용은 알지만 십계명이 어떻게 내려졌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십계명은 성경적 맥락에서 단순히 윤리적 원리의 추상적 체계가 아닙니다.

십계명의 말씀이 있는 출애굽기 20장의 전 장들의 내용을 분리시켜 이해해서는 안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속하고 형성하신 내용으로 한 특별한 이야기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성된 것은 애굽의 속박에서 극적으로 구원받으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간혹 십계명이 왜 구약의 다른 율법들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두 가지 점을 자명해 본다면 십계명은 시내산 언약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율법이라는 점과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중계자인 모세를 통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귀에 직접 들려주신 유일한 율법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구약의 모든 율법들 중에서 독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열 개의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결국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이점에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요약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계명은 각각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으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의 요구입니다.

십계명은 사랑에 대한 요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랑은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기초합니다. 이 구원은 십계명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율법적 요구의 기초가 됩니다.

구약의 십계명은 놀랍게도 오늘날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다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마음에 중심에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3월17일

심채린

본문: 출애굽기 24장 1~11절

제목: 하나님과 언약체결

대지: 만장일치 순종 / 언약백성

한 문장: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자발적 순종과 온전한 순종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다.

참고: 엑스포지멘터리, UBC, 출애굽기 산책(박철현), WBC, HOW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시내산 언약의 마지막 본문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하여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 20장부터 23장까지 선포된 여러 규례를 상징하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으로 받는 것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만 특별히 가까이 불러 그에게 모든 말씀과 규례를 전하여 주셨습니다. 모세가 즉각적으로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에게 “여호와와 말씀”과 “법규”를 전하자 백성들은 ‘한 소리 응답하여’ 곧 만장일치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고 순종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계약서의 도장을 꼭 찍은 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주신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산기슭에 제단을 쌓아 열두 지파를 기념하기 위한 기둥들도 세우며, 백성들은 그곳에서 수송아지를 잡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모세는 두 번의 걸쳐 언약 준수에 대한 서약을 하는데요, 화목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피의 절반은 제단에, 나머지 절반은 백성들이 다시 한 번 순종을 다짐한 후에 그들 위에 뿌리며 ‘이 피는 모든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와 맺는 언약의 피’라는 것을 선포해주었습니다.

이윽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산위에 올라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다른 지도자들이 여호와를 직접 보고 무사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실제 모습이 아닌 특별한 임재를 나타내는 신현현상일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10절의 표현도 신현현상에 대한 묘사일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앞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장일치의 신앙적 결단과 순종이 비록 이후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시로서는 진실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적 결단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또한 자발적 순종과 결단이 아닌지 생각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인간 스스로의 자발적이고 온전한 순종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은 오늘 그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분입니다. 말씀에 대한 성도의 바른 태도는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3월24일

심채린

본문: 출애굽기 34장 1~9절

제목: 모세가 새 돌판을 얻다.

대지: 여호와의 성품 / 간구의 기도

한 문장: 인간이 하나님과 맺을 수 있는 언약은 오직 은혜뿐입니다.

참고: 엑스포지멘터리, UBC, 출애굽기 산책(박철현), WBC, HOW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다시 한 번 더 십계명의 돌판을 받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돌판을 받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모세가 시내 산 정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듦으로써 크게 분노한 모세는 처음 돌판을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이스라엘을 몰살 시키고 모세를 새 민족을 세우시겠다는 것이었지만 모세의 눈물 어린 기도와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을 설득해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깨뜨려버린 돌판 대신 새로운 돌판을 주시기로 하였고 이 새 돌판을 받기 위해 모세는 다시 시내산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언약을 세우시기 전 자신에 대해서 반포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성품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고, 인자를 천 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 길과 죄를 용서 라시며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대까지 보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 모세는 급히 엎드려 절하며 다시 한번 '목이 뻗뻗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9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에 따르면 '목이 뻗뻗한 백성'은 이스라엘이 진멸을 당해야만 하는 이유였습니다. 황금 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이 결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자격이 없는 존재들임을 확실히 각인시켜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목이 뻗뻗한 백성일 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속성이나 행위에 기초한 행위언약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언약일 뿐입니다.

어쩌면 이 백성이 첫 언약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을 때에도 그들을 끝내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의 뒷문을 모세에게 열어주어 결국은 그들을 용서해주셨던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첫 언약 자체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인간의 생각이 어찌 선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것을 찾는 것이 어려운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솔직하게 고백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목이 뻗뻗한 백성과 같이 하나님 앞에 떳떳할 것 없는 부끄러운 자이지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숨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을 수 있는 계약의 조건은 없습니다. 그저 조건 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언약 뿐입니다.

3월31일

심채린

본문: 출애굽기 40장 34~38절

제목: 이 땅에 오신 영광

대지: 모세에게 명령하신대로 / 인도하심

한 문장: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자

참고: 엑스포지멘터리, UBC, 출애굽기 산책(박철현), WBC, HOW

출애굽기 40장에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대로 다 행하였다는 말이 총 7번이 나옵니다. 7은 완전수로서 성막 제작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료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이라는 모형을 그들 가운데 주심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곧 성막을 준비하는 과정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성막을 준비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하나님을 뵈옵고 그분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고 의미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예배는 정말 오래동안 기다려야 하는 것이었다 왜냐면 하나님이 직접 다 관여하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마쳤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망하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장막에 임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늘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백성들의 땅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구름이 회막 안에 거하며 이스라엘의 모든 여정을 이끌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곳에 머무시면 이스라엘도 그곳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동하시면 이스라엘도 이동하면서도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스스로 갈 길을 개척할 필요 없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밤에는 불이 이스라엘의 눈이 되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상태인지 생각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 때에 내 갈 길을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 가는 것뿐입니다.